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사회와 인공지능의
심리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최예슬

현대사회와 인공지능의
심리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최예슬

인 준 서

최예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도시인들이 만들고 가꾼 인공정원’의 관찰과 작품분석을 통해 현대사회가 지닌 여러 특징들을 연구하고 현대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리 상태를 분석한 연구이다. 인공적으로 꾸며진 정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면모를 분석하고, 그 제한된 틀 속에서 자연 본연이 지닌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의 심리적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의 심리적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 우선하여 확인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였다. 특히 사회 깊숙이 자리한 자본주의는 사회적 특징을 만드는 여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본주의란 ‘생산 사회’를 의미한다. 생산사회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이 목적이고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거대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다수를 획일화시키고 자본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는 사회이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이 커지고 업무의 성과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며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된 셈이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기 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꾸며진 모습의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을 도시인들이 만든 인공정원을 관찰하고 그 속에 내포된 현대사회의 특징 및 심리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작품 속에 비친 자연 본연의 모습을 통찰해 봄으로써 사회구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 본연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재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다. 이것이 작품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다.

작업에서 주로 표현된 인공정원 속 식물의 형상과 말끔히 재단되어진 자연의 모습은 현대사회를 사는 구성원들의 내적 상태를 표현해 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혼신을 다해 성장해 가는 인공정원의 모습을 통한 작가 본인이 지닌 심리적 상태의 반영이기도 하다.

작품표현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표현을 위해 주재료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색연필을 사용하였다. 색연필은 현대사회의 무미건조함을 드러내기엔 적합하며 개인의 감정과 존재가치가 가볍게 여겨지듯, 가벼운 무게감 표현이 가능한 도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구도로 나타나는 여백의 특징을 도입해 불필요한 소재의 삭제, 대상에 대한 몰입도의 증대, 그리고 관람인으로 하여금 시각적 여운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색인 녹색연구를 통해 녹색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내재된 요인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작품 전반에 흐르는 색채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작품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는 억압과 제한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동시에, 절망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녹색이란 색채를 통해 안락하고 희망적 메시지를 담는 것이 작품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3
1) 현대인의 삶과 현 사회구조의 폐해	3
2.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	6
1) 작품제작의 배경	6
2) 작품 전개과정 및 사용된 재료	8
3) 녹색의 심리적 효과	10
3. 작품 해설	13
III. 결 론	26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논문은 먼저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틀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찰과 통찰은 현 시대를 사는 예술가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사회적 특징을 현대인이 만든 ‘인공정원’이라는 작품 주제와 연결지어봄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탐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작가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그 폐해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 사회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그릇된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시초에 노동력을 상품화 했다면, 현대의 자본주의는 인간을 정해진 기준과 잣대에 따라 ‘획일화’하고 평가한다. 평가에 앞서기 위해 구성원은 치열한 경쟁과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안은 집단에 순응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집단을 벗어나 온전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회가 주어진 틀 안에서 안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금 개인의 개성과 목소리는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차별성 없는 유사한 목표를 향해 가는 현상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보다 타인의 기준과 가치에 맞추려 노력하는 사이 진정한 의미

에서 개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무개성(無個性), 획일화의 사회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시 속의 인공정원’을 보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정원의 모습에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의 무개성, 획일화 등 시대가 지닌 심리적 상태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획일화된 사회, 경쟁사회, 성과사회, 자아에 대한 지나친 관심사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동시대가 지닌 독특한 문화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를 작품 속에 표현된 인공정원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서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통해 작품제작 배경을 알아보고 작품전개과정에서 인공정원을 표현한 재료와 작품이 제작되기까지 매체와 재료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백을 남기는 화면구성의 의도와 더불어 녹색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추후 본인의 작품 활동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1) 현대인의 삶과 현 사회구조의 폐해

18세기 중엽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자본주의는 19세기에 들어 일본과 미국으로 파급되며, 이후 대한민국에도 정착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들어오며 우리 사회도 사유재산과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인정하고 독려했다. 이 과정 속에 노동력은 상품화 되었으며, 사회구성원은 상품화된 노동력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을 맞추고 가꾸어야 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누군가 이 구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재화의 혜택에서 벗어날 위험성도 커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식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토양 안에서 가다듬어지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본인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통제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표현과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모습과 그 문제점을 도시 속 인공정원을 관찰하며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 구성원의 마음이 그들이 직접 재단하여 만든 인공정원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 본인이 발견한 주요 내용이었다.

인공정원을 관찰하며 발견한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획일화된 사회'이다. 정교하게 구조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다수가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 재화 획득에 유리한 직업을 추구하는 것, 사회에서 선도적인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사회적 구조는 사람들을 소수의 제한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도시에서 어떤 장소든 같은 모양으로 재단되어진 인공정원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누군가 구획하여 만든 대지위에 사는 식물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유사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서 차별화되지 않고 획일화된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보다 모두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현대사회 속 구성원들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혜택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은 개성의 표출보다 스스로에 대한 채찍과 사회의 이탈자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된다.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사고보다 적절히 제한된 사고의 틀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한 것도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 터득한 생존법일 것이다.

본인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혼신을 다해 사는 우리 모습 속에서 인공정원의 식물들과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정원 안의 식물들은 그들에게 맞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 양보한 채 살아간다. 이 삶은 정해진 틀에 의해 자유가 억압된 현대인과 같이 느껴졌다.

셋째. '성과가 우선시 되는 사회'이다.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이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기보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선택한다. 현대사회에서

자아 피로에 대한 호소, 정신적 피로에 대한 호소는 나약한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사회에서 스스로에 대한 불이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공정원과 작은 화분에 사는 식물도 자유로운 성장보다 억압된 공간속에서 자신의 몸을 제한하며 자라게 된다. 주어진 공간을 벗어난 식물은 곧 사람의 눈에 띄게 되고 이내 재단될 위태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울타리 안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지대에 몸을 맡겨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식물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능동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이 사회구조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순응하는 듯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폐해는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자본주의 체제아래 사유재산의 정도에 따른 사회적 평가와 그에 따른 계급화 사회에서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아의 모습에 다수의 대중은 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자아가 아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재단하여 만들어 지는 것에 익숙해진 대중은 그것이 바로 ‘나’이자 ‘자아’라는 신념 속에 삶을 지속하게 된다.

즉, 스스로를 재단하여 만들어 내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다. 최근 수많은 SNS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것도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잘 다듬어진 인공정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정원 속 식물들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라기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살게 되며, 조금만 튀더라도 바로 잘려나가게 된다. 말끔하게 재단된 식물들 틈에서 스스로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비슷비슷한 성장을 하는 모습이 정화된 모습만 노출하려는 현대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느껴졌다.

이렇듯 현대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은 도시 속에서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연, 특히 인공정원의 모습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 속 인공정원’을 관찰해 보면 어느 곳을 가나 획일화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울타리와 그 안에 예쁘게 단장하고 있으며 행여나 말끔하지 않은 정원은 오래지 않아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치장 된다.

인공정원은 자연그대로의 자유로움이 아닌 사회가 지닌 특성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정해진 구조의 틀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삶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

1) 작품제작의 배경

현대사회는 그 구조가 낳은 부정적인 가치들에 의해 마치 불안정한 대지와 같이 느껴진다. 이러한 구조를 축소시켜 보여줄 설정이 필요했고, 현재까지 살아오며 수없이 경험했던 ‘도시’라는 공간과 그 속의 ‘인공정원’을 키워드로 잡았다.

본인에게 ‘도시’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사는 바쁜 공간 이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이기도 하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이 흔한 일이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돌연사하여 몇 달 뒤에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이기도 하다.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발달된 사회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부재하는 삭막한 환경이다.

인공정원은 인간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황량해 보일 수 있는 회색 도시에서 여유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 인공정원은 반듯하고, 동그랗고, 예쁘게 가다듬어진 형태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를 관찰하면 할수록 개인마다 소중한 개성과 가치가 재단 당하고 잘려나간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인공정원은 스스로 공간을 결정하고 자랄 수 없고 도시의 주인인 인간에 의해 구획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결정된다. 정원의 식물들은 인간에 의해 심어지고 꾸며져 배치되며, 필요에 따라 언제 어떻게 바뀌고 버려질지 모르는 공간속에서 혼신을 다해 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시 속 ‘인공정원’의 형상은 현대사회를,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식물들’의 특성이 ‘현대인’으로 표현하기에 어색함이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정원의 모습을 말끔히 재단된 가공의 자연으로 볼 수만은 없었다. 비록 정해진 공간 안에서 울타리를 짓고 자라고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성장과 개성이 표출되기도 한다. 그들은 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에 집중하며 자라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역동적으로 보여 지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 복종하는 듯한 인공정원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 한 채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강제로 구획되어지고 재단당하는 인공정원의 모습은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아래 서술한 『식물성의 사유』의 단락처럼 인공정원 속 자연이, 주어진 공간 속에서 끊임없는 생성을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요소였다. 이는 대상물을 바라보는 작가로 하여금 일말의 희망을 느끼게 해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식물성의 세계는 고요하며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다. 그 세계는 자신의 주어진 공간에서 수직으로 뻗어 내려가거나 위로 부풀어 오른다. 지표가 경계를 이루고 그 위와 아래로 세계는 나뉜다.¹⁾

마음껏 자라지는 못하지만 도시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식물의 모습은 흡사 도시인의 삶과 비슷하다. 그냥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의미로 채우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²⁾

이렇듯 현대인의 성장 또한 더딘 속도로 보일지라도 각자 자신의 꿈과 가치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며 성장시키는 것 또한 의미 있음을 인공정원의 모습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어떤 것 보다 아름답고 희망적일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내재된 의도였다.

2) 작품 전개과정 및 사용된 재료

앞서 의도를 반영한 2014년 ‘틈_틈결_조용한 목소리’ 석사청구 전시를 준비하며 표현방법과 보여주기 방식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였다. 적절한 재료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 인가였다.

이에 습관처럼 사용하던 재료를 버리고 오일파스텔과 오일바(oil bar)로 전환하였다. 문지르는 행위, 덧바르는 행위, 손을 사용하는 직접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본인의 감정과 느낌이 훨씬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의 시도였다. 하지만 굵은 표현

1)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p.3

2)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p.3

과 쉽게 공개지는 재료의 특성상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표현이 그치는 경우가 잦아 섬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쉽지 않았다.

이후 본인이 도시 속 인공정원에서 사는 식물의 삶을 통해 느꼈던 지점을 보는 관람자가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영상을 이용하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직설적이지만 직접적인 만큼 생동감 있게 본인의 의도를 잘 전달 해 보고자 【작품01】 , 【작품02】 와 같이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풀이 가득 찬 화면을 확대 촬영하다 보니 현대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보다 식물이라는 소재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점이 생겼다. 여기서 본인이 근본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었던 현대 사회구조를 대변 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했고 그 이야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설정이 필요했다.

이후 도시 속에 존재하는 인공정원을 기본 설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정원 내부에서 살아가는 식물의 생태계를 관찰하며 표현한 것이 이 논문의 주된 작품들이다. 또한 재료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색연필이다. 현대 사회가 주는 삭막한 느낌이 색연필이 주는 선의 느낌과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색연필의 얇고 가는 선이 겹치고 겹쳐 확장되어 커다란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모여 만든 동시대의 자화상 같았다. 또한 현대인의 삶과 흡사한 구조의 인공정원과 녹색 식물들을 그려 나가면서 대상에 감정을 투과해, 여리지만 강한 존재로 탄생 시키며 일종의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구도를 통해 심리적 효과를 끌어내고자 ‘여백’을 반영하였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인 듯 보이지만 그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생긴다. 특히, 화면 구성에서 여백을 시각적 여운으로 인식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과 자연스러운 담백함을 주기 적절하였다. 즉, 본인의 작품에 인공정원과 식물들 이외의 불필요한 소재가 삭

제되며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의도하였다.

3) 녹색의 심리적 효과

어린 시절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며 다양한 약품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큰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가족과 도시를 벗어나 온통 풀과 나무로 되어있는 수목원과 산을 다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뜻밖에도 피부의 병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었다. 이 계기는 본인이 이후 풀과 나무 그리고 그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 ‘녹색’ 색채에서 치유를 얻는 토대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녹색’을 접하면 그 감각 자체로 마음과 정신이 편해질 수 있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특정 색채를 접하는 행위가 어떤 말의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던 이 경험이 본인의 작업에서는 ‘색채’를 이용하여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확신을 좀 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색채의 효과와 실제 색채의 상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색채는 심미적인 것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행복함, 기쁨, 경쾌함, 따듯함 혹은 우울함, 슬픔, 분노, 공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색채가 인간에게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 하고 있다면 색 자체로도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실례로 영국에 위치한 템스 강에 있는 다리 중 ‘Blackfriar Bridge’ 다리는 검은색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곳이 런던의 자살 장소로 유명했다고 한다. 자살하는 인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다리의 색을 검은 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꾸는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투신을 시도하는 사람의 수가 1/3으로 줄어들어 사회분위기가 절망에서 큰 희망으로 바뀌었다. 또 영국의 한 부딧가에서 노동자들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무거워서 파업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당시 이 컨테이너의 색은 매우 어두운 색이었다고 한다. 해결책으로 해운 회사는 컨테이너들의 색을 더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칠했더니 근로자들은 그저 색만 바뀐 컨테이너 박스에 만족하고 파업은 좋은 결과로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색채의 자극으로 인한 인간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예를 봤을 때 색채가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인 작용을 무시 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색채 심리와 관계되어 색채에 내재된 색채의 영향, 치료 상징 등을 활용해 색채 조절, 색채 처방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³⁾

빨강이나 노랑에 대한 반응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녹색에 대한 반응 시간은 길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빨강이나 노랑을 안정된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녹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한다.⁴⁾ 또한 녹색계통은 편안하고 안락한 감정 및 관용적이고 안정적인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본능 적으로 자연을 찾게 된다. 녹색은 자연 환경을 불러들이는 고요하고 안전한 색이다.⁵⁾

색은 이처럼 학문 분야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관점으로 인지되는데 공통적인 점은 가시광선 중 녹색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차가운 쪽으로도, 뜨거운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며, 짧은 파장도, 긴 파장도 아니어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녹색의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치유에 활용이 된다.⁶⁾

이와 같이 본인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녹색 색채의 사용의도를 구체화 할

3) 송화선, 『Relaxation과 Distress 감성 표현을 위한 색채 연구』, 2012, p.96

4) 송화선, 『Relaxation과 Distress 감성 표현을 위한 색채 연구』, 2012, p.97

5) 권영길, 박자은, 『색채치료에 기초한 주거공간의 녹색에 관한 연구』, 2004, p.5

6) 권영길, 박자은, 『색채치료에 기초한 주거공간의 녹색에 관한 연구』, 2004, p.3

수 있었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녹색 이외의 색들은 무채색으로 처리하거나 매우 흐리고 가늘게 표현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였는데 녹색이 대조적으로 더 쉽게 눈에 들어와 본인이 의도한 색채의 효과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여러 특징과 폐해를 인공정원을 통해 표현하였지만 이러한 제약 속에서 보다 희망적인 자연 본연의 색, '녹색'의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제한된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며 자연의 색채에서 얻어지는 치유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3. 작품 해설



【작품01】 their rhythm I , 영상, 4분30초 中 3분30초, 2013

【작품01】은 매일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치는 작은 풀을 촬영한 것이다. 콘크리트 보도블록 틈에서 약 3주간 지켜보면서 같은자리에서 생명을 틈을 이룬 이름 없는 잡초에게서 생명력을 느꼈다. 작은 풀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먼지와 거센 바람을 견디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동경의 마음과 동시에 반성하였다. 특별한 개성 없는 잡초가 그의 리듬대로 꾸준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배울 것이 많았다. 다른 풀처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작은 풀처럼 빠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이사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싶은 마음가짐이자 필요한 태도라 생각하였다.



【작품02】 -(1)위_ there rhythm II, 영상, 5분5초中 07초, 2013

-(2)아래_ there rhythm II, 영상, 5분5초中 4분59초, 2013

【작품02】에서 풀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다. 【작품01】에서 바람이 시련처럼 느껴졌다면 【작품02】의 바람은 외부의 자극으로 다가왔다. 외부의

힘 즉, 한 사회의 권력자에 의해 힘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비유하여 답았다.
이는 현대사회 속 구성원으로써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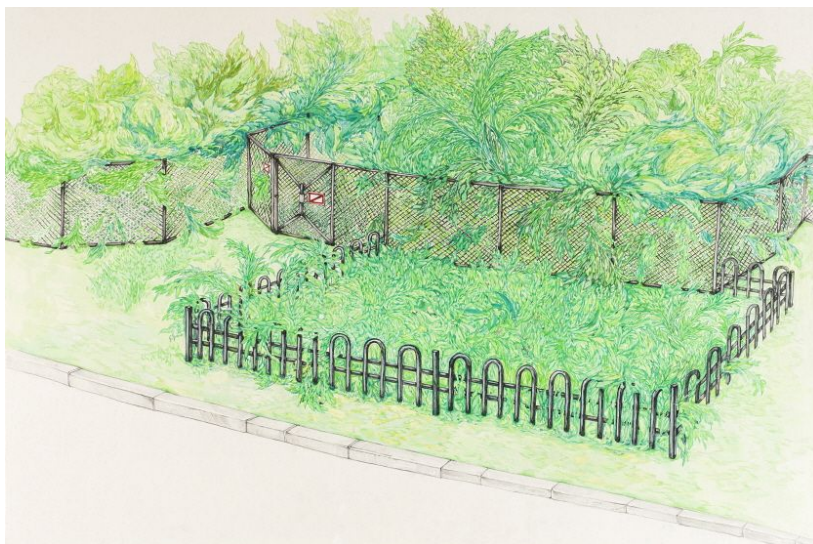
【작품03】 비뚝-비뚝, 장지에 혼합재료, 145.5 × 112.1cm, 2014

【작품03】의 화단은 본인의 거주지 바로 앞에 있다. 매일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식물들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키워나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용 가치에 따라 동그랗고 예쁘게 재단당하는 나무와 풀의 모습에서 아픔이 느껴졌다. 이는 본인의 생각과 가치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보다 만들어진 타인의 기준에 의해 삶과 가치가 포장되었던 경험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와 풀은 제한된 공간에서 수

직으로 뺀어 나가며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소리 없는 저항을 하고 싶은 내면을 표출해 보았다.



【작품04】 촘촘한 숲, 장지에 혼합재료, 145.5 × 112.1cm, 2014



【작품05】 여기_거기, 장지에 혼합재료, 145.5 × 97.0cm, 2014

【작품04】 와 【작품05】 의 울타리는 사회가 원하는 기준의 틀을 비유하였

다. 그 틀 안에서 개인의 모습을 감추고 맞추어 살아가는듯하지만 실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포화상태로 저항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본인 내면의 욕구를 해소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풀과 나무는 인공정원을 만든 주체에 의해 언제 어떻게 재단되어 질지 모르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부풀려 확장시키며 성장하고자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보기에는 울타리 속의 가득 찬 수동적인 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자신을 지켜내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식물은 자리를 이동하거나 커다란 움직임으로 위협하진 않지만, 주어진 환경 속 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간을 극복한다. 이 모습은 사회에서 발버둥 치는 현대인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색감을 더 화사한 녹색계열을 사용하여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06】 화분-위안, 장지에 혼합재료, 116.8 × 91.0cm, 2014

【작품06】의 공간은 본인이 느끼는 ‘가정(家庭)’의 모습이다. 성인이 되며 본인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가 단단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정 내부의 제약과 틀이 어린 시절보다 답답하게 느껴져 벗어나고 싶지만 한편으론 의지하며 살았던 대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한 모순된 마음이 있다.

이러한 감정을 울타리 속 풀과 나무는 틀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듯 보이지만, 공간을 구획한 대상에게 안정을 느끼며 안주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나무가 다친 부분에이 인공정원의 주인이 붕대로 감아주고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는 은연중에 내부의 도움을 받으며 의지하는 모습을 비유하였다.



【작품07】 어떤 저항, 장지에 혼합재료, 116.8 × 91.0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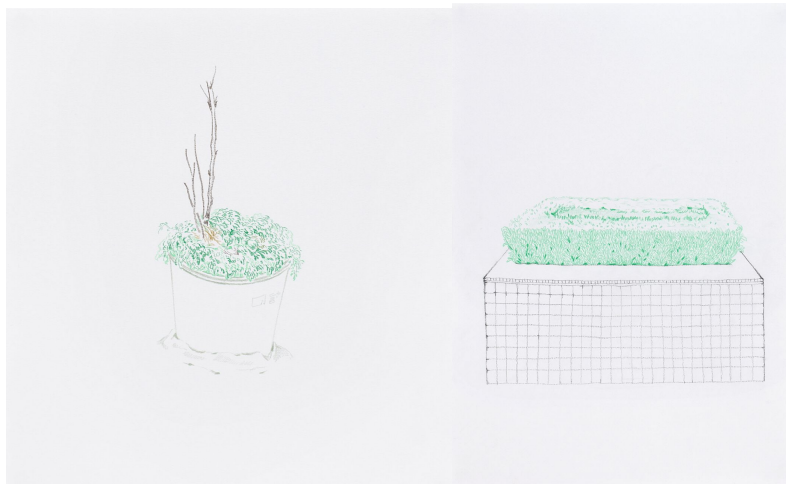
본인의 아파트 단지는 매년 봄에 ‘가지치기’를 시행한다. 【작품07】은 그 풍경을 확장시켜 그려보았다. 누군가가 나무 몸체의 일부분을 불필요하다고 단정 짓고 가지치기를 한 뒤 쌓아놓았다. 심지어 빨간색 띠를 둘러 ‘접근 금지’ ‘위험’ 이라 규정지어 놓는 모습은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권력자의 의견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마치 【작품07】의 빨간 띠처럼 타인의 판단을 의심해 볼 기회조차 갖지 않고 자연스레 따라가는 내면을 표현해보려 하였다.



【작품08】 왼쪽_ 누구의 ‘곳’ I, 캔트지에 혼합재료, 53.5 × 45.5cm, 2014

【작품09】 오른쪽_ 누구의 ‘곳’ II, 캔트지에 혼합재료, 33.4 × 24.2cm, 2014



【작품10】 왼쪽_ 모(某)자란 자리 II, 캔트지에 색연필, 26.8 × 29.7cm, 2014

【작품11】 오른쪽_ 모(某)자란 자리 I, 캔트지에 색연필, 42.0 × 29.7cm, 2014

【작품08】 【작품09】 【작품10】 【작품11】 은 같은 맥락의 연작 드로잉이다. 모두 협소한 공간에서 자라는데 특히 식물에게 알맞지 않는 아스팔트가

기반이 되어 있다. 【작품10】 과 【작품11】 에서 그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주어진 자신의 공간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에 의해 가꾸어지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특히, 【작품08】 , 【작품09】 의 인공정원에 설치된 ‘○○아파트’ ‘주차금지’ 와 같이 여러 팻말들로 인해 누구의 공간인지 혼란스러워 보인다. 결국 개인의 정체성조차 불분명해지는 모습을 통해 각자의 목표가 아닌 획일화된 목표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년들 모습과도 같이 느껴졌다.

경쟁과 성과위주의 사회 속에서 각자의 꿈 과 가치가 그 자체로 존중 받기보다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는 이러한 현실과 안타까운 느낌을 인공정원이라는 작은 사회와 그 속의 식물을 통해 비유해 보았다.



【작품12】 슬슬한 돌음, 아르슈지에 색연필, 27.0 × 27.0cm, 2014

본인은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라 생각해 본적이 있다. 열외 당하거나 비난 받기보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기준에 발맞추어 걷는 것이 때로는 편하게 느껴진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일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와 기준을 원래 자신의 것처럼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작품12】에서 그려진 화분은 본인을 둘러싸고 있던 선입견의 틀

이며 그 안에서 본인의 의견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흙이 쏟아지면서 이전에 머무르고 있던 틀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푸름을 간직한 새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인공정원을 현대사회 속 구성원들의 내적 심리와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시대가 가진 특유의 불안정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심리는 동시대인이 살고 있는 도시 속 인공정원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쟁과 성과’, ‘억압과 제한’ 등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관찰할수록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공정원에서 현대사회 자본주의의 폐해를 발견하는 동시에 뜻하지 않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속박되고 갇혀 있는 인공정원이지만 그 안에서는 속박을 뛰어 넘으려, 작지만 큰 도전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방이 막힌 인공정원의 식물은 하늘을 향해 치솟으려 하고, 제한된 틀에 막힌 울타리와 시멘트벽의 틀을 넘으려고 시도한다. 이 모습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었다. 비록 사회가 주는 억압과 폐해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고, 희망을 품으며, 사회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회 속에서도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렇듯 도시 속 인공정원을 관찰하며 느낀 감정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였으며, 재료, 구도, 색채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그 표현을 극대화하였다. 이후 내면의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 과정은 본인에게 작업 활동이 심리적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가 지닌 비판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는

구성원의 생명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하였다. 작품 속 인공 정원은 속박된 존재이지만 언제라도 다시 본연의 생명력으로 개성을 표출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도 그 본연의 자유로움과 개성이 지속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다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잃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다.

논문을 통해 내면의 이야기로 머물던 본인의 작품 세계의 일부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와 연결지어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추후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의 여러 면모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자연의 모습과 연관 지어, 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둘러싼 사회와 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 스베냐 플라스펠러, 정혜경 옮김,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로도스, 2013
-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출판사, 2007
- 한병철, 김태환 옮김, 『시간의 향기』, 문학과 지성사, 2013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학위논문

- 김유성,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을 통해서 본 현대사회 구조와 인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이진희, 『치유의 과정을 통한 심상 이미지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술지 논문

- 권영걸, 박자은, 『색채치료에 기초한 주거공간의 녹색에 관한 연구』, 2004
- 김선화, 이승희, 『색채자극 전과 후 달라진 색 사용에 관한 연구』, 2009
- 송화선, 『Relaxation과 Distress 감성 표현을 위한 색채 연구』, 2012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ABSTRACT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Expression of Modern Society and Manmade Gardens

– With a Focus on the Author's Works –

Choi, Ye Seul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various characteristics of today's modern society and analyze the implicit psychology of modern people by observing and analyzing "manmade gardens created and tended by urbanites". This study intended to observe and express the psychology of the members of modern society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based on the appearances of artificially decorated gardens and confirming nature's intrinsic will within those limited frames.

First,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where we live had to be examined to research the psychology of modern people. In particular, capitalism, which is deeply rooted in our society, worked as various factors for creating our social characteristics.

Capitalism refers to "production society". In the production society, its goal became mass production to maximize economic efficiency and giant machines such as conveyor belts began to replace humans. In modern society, capitalism standardizes a number of people and they compete with each other to obtain capital. During this process, not only physical labor, but emotional labor have increased, and our society has become performance-oriented as job performance is positioned as an important value. In addition, individuals are overly conscious of the way other people look at them, thus they create an artificial self rather than their own appearances, and face their decorated self-imag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brought by this capitalism, this study aimed to observe and research "manmade gardens created by urbanites who live in the respective era", thereby researching and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mplied within those gardens and the psychology of people who live in the era in a detailed manner. Moreover, this study intended to contemplate nature's intrinsic aspects reflected in those manmade gardens and use this act as the opportunity to confirm humans' intrinsic will and look for inherent hopes contained within the social structure. This was the key starting point of the author's creation of the works.

The shapes of plants and the appearance of cleanly cut-out nature within the manmade gardens, which were mainly expressed within the author's works, aimed to express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members of modern society. These manmade gardens that endeavor to grow within their defined zones while not being able to get out of them are

also the reflection of the artist's own psychological conditions.

As the method of expressing these works, colored pencils, which enable detailed expressions, were mostly used as the main material for the above psychological expressions. Colored pencils were considered suitable for revealing the dryness of modern society and expressing light levels of weight feelings as if individuals' feelings and value of existence are taken lightly.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blank spaces exhibited by the composition of the works were introduced to remove unnecessary materials, increase the audience's immersion in the subject, and provide the audience with visual aftertastes.

Finally, this study intended to concretize our understanding of the main color that flows over the overall works and the method of its expression by performing more detailed research on the green color's intrinsic meanings and its implicit elements through a review of nature's color green.

As its main story, this study aimed to reflect the appearance of today's oppressed and confined modern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author's creation was to contain a comfortable and hopeful message using the color green instead of ending up expressing despair.